

김영훈 장관, 제114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 계기 질베르 옹보 ILO 사무총장 면담

- 여야 국회의원 및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참석 -
- 인공지능(AI) 전환 시대 노동권 보호에 대한 한국의 관심과 사회적 대화 의지 공유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114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 정부대표단과 함께 6월 9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질베르 옹보 ILO 사무총장과 면담하였다. 이번 면담에는 여야 국회의원 및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도 함께 참석했다.

* ▲(국회) 이학영, 김위상, 김주영, 김형동 의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지형 위원장

김영훈 장관은 지난 5월 ILO 사무총장 방한 당시 면담(5.21) 이후 제네바에서 다시 만나게 된 데 대해 반가움을 전하며, 사람 중심 AI 정책 추진방향, 한-ILO 협력사업 등 양측간 파트너십 확대, 국제노동분야에서의 한국의 역할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옹보 사무총장은 “국회와 사회적 대화기구가 함께 참석한 것은 한국 사회의 국제노동 의제에 대한 높은 관심과 사회적 대화 의지를 보여주는 의미를 가진다”라고 평가하고, “한국이 추진중인 글로벌 AI 허브 및 한-ILO 협력사업 등을 통해 양측간 협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함께 참석한 여야 국회의원들도 AI 전환시대 노동권 보호 및 양질의 일자리 해법 모색을 위한 긴밀한 협력 및 사회적 대화 의지를 표명했다.

이학영 의원은 노동자 존엄 및 사회정의 수호를 위한 옹보 총장의 리더십에 경의를 표하며, “대한민국 국회도 AI로 변화하는 노동시장 속에서 인간 중심(human-centered) 전환과 노동권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김형동 의원은 “전환의 시기마다 노사정은 항상 지혜를 모아 해법을 모색해 왔다”라며 “AI 전환의 어려움에 직면한 지금, 이번 ILO 총회가 좋은 선택에 대해 고민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희망하며 한국 국회도 힘을 보태겠다”라고 밝혔다.

김주영 의원은 “디지털, AI, 인구구조 변화의 대전환 시대에 대응하는 국제 노동규범을 노사정이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한다”라고 말하며, 특히 AI 전환이 불평등을 심화시키지 않도록 동반성장을 위한 노사정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위상 의원은 “AI와 디지털 전환은 피할 수 없는 변화이지만, 그 과정에서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전환기 더욱 취약한 노동 약자에 대한 ILO의 관심과 역할을 요청했다.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한국은 ILO 제144호 삼자주의 협약을 비준한 국가로서,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주요 노동의제 해법을 모색해 왔다”라며, “노동현장의 변화에 대응하여 노동기준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ILO 정신을 참고하여 앞으로도 사회적 대화에 매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면담을 마무리하며 김영훈 장관은 “AI와 산업구조 전환의 시대일수록 사회적 대화와 국제연대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한국은 ILO와 함께 사람 중심의 AI를 위해 국제사회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선도적인 역할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면담은 정부와 국회, 사회적 대화기구가 함께 참여하여 AI 전환시대 노동권 존중을 위한 국제 노동정책 의제와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담당 부서	국제협력관	책임자	과 장	이강연 (044-202-7129)
	국제협력담당관실	담당자	사무관	정혜진 (044-202-7133)

